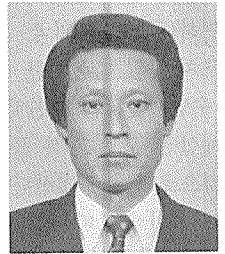


'94 Summer CES를 다녀와서



김 중 수
개발지원과장

1. 개요

지난 6월 22일~28일(7일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하계 CES에 참관하기 위해 본회 이상원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18명의 참관단과 함께 하계 CES '94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CES(Consumer Electronic Show)는 미국 전자공업협회(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Consumer Electronics Group)가 주최하는 세계최대의 가전부문 전자전람회로써 매년 1월에는 라스베가스에서, 6월에는 시카고에서 각각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95년부터는 필라델피아에서 「CES 인터랙티브 '95」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이라 한다.

CES 인터랙티브 '95는 컴퓨터, 비디오 게임기, 멀티미디어, 인터랙티브 비디오 등이 테마가 되는 데 기간은 내년 5월 11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데 전시장은 펜실베니아 컨벤션 센터가 될 예정이다.

금번 CES는 주전시장인 McCORMIC Place(동관, 북관)와 부전시장인 McCORMIC Center Hotel, Chicago Hilton 및 Towers에서 3일간(6. 23~6. 25) 개최되었다.

2. 출품동향

금년 하계 CES는 예전처럼 화려한 가정용 AV기기 쇼라는 인상은 적은 대신 정보·통신 기기부터 차세대 게임기로 범위가 확대되어 멀티미디어 전시장의 주장소가 되었다.

참가업체 수는 700여 업체이며 기간중 연 4만~5만명의 입장이 추정되었다. 미국의 경기회복을 배경으로 미국의 가정용 전자기기 시장도 상승되고 있어 EIA가 개최 일에 밝힌 바에 의하면 '94년도의 미국 가정용 전자기기 시장은 전년대비 9.5% 증가된 560억 달러, '95년도에는 적어도 6.2% 증가된 약 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ES는 대규모 하드웨어 메이커의 참가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데 특히 일본 메이커들이 동계 CES에 타격을 맞춘점도 있어 불만한 제품이 별로 없다는 느낌을 주고, 한편 3DO를 비롯한 차세대 게임기, CD-I, 비디오 CD, 포토CD 등 멀티미디어 관련분야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CES로의 전환이라는 인상을 깊게 남겨 주었다.

영상기기 부문에서는 Digital Satellite System(DSS)의 전시가 RCA의 부스에서 눈길을 끌었으며 GI는 같은 부스 내에 프라임스타사의 디지털 중출력 DBS 리시버와 직경 20인치의 접시형 안테나를 출품하기도 했다.

다채널 시대를 노린 스타사이트사의 인터랙티브는 스크린 프로그램 가이드 서비스도 전시회장에서 전시되었는데, 미국의 98%의 수신

세대를 커버하는 PBS 방송국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 방송이 시작되고 있으며 제니스는 7월부터 서비스용 디코더를 내장한 TV의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캠코더 신제품에서는 소니가 소니갤러리 전시장에서 3인치 컬러 액정과 스피커를 내장한 8mm 캠코더인 CCD-FX 730V를 발표했으며, 주전시장에는 RCA가 일본빅터가 이미 발표한 액정모니터 부착 VHS-C 모델을 RCA 브랜드로 출품하기도 했다.

정보관련기기전인 PCC 전시장에서는 IBM 퍼스널 컴퓨터사와 HP사가 휴대형 퍼스컴을 출품한 것 외에 모토로라, 아메리텍, 스카이텔사가 무선통신의 응용을 홍보하고 있었다.

하계 CES 출품회사의 비중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지는 속에서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의 주도권 경쟁이 나타났으며, 필립스의 CD-I 플레이어와 3DO사의 인터랙티브 멀티플레이어 등 저가격 기종들이 선을 보이기도 했다.

금년에는 하드웨어 메이커의 출품이 간소화된 것에 비해 소프트웨어 메이커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동향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에서 방송이 시작된 위성방송인 Digital Satellite System(DSS)의 데모도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딜러의 관심을 모으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작년에 이어서 개최되는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및 컴퓨팅쇼(PCC)에서는 IBM, HP 등 컴퓨터 메이커 외에 모토로라, 아메리텍 등 다양한 메이커들이 개인정보 단말기(PDA) 등 첨단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보여주었는데 참가업체 수는 약 700개사로 추정된다.

특히, 멀티미디어 중심의 신종 소프트웨어

발표가 매우 두드러졌다.

한편 국내의 금성은 3DO Game 관련 전시장에 Video Game기를 출품하였으며, 대우 등 주요업체도 Floor 전시에 불참하는 대신 고객관리 차원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였다.

3. Show의 특징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개인용 통신기기, 3DO 비디오게임, Computer화된 멀티미디어 기기 등이 많이 출품되었으며, Show의 규모 면에서는 빈약한 편이며 특히 전자 Show라기 보다는 개인용 통신기기와 비디오 게임 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두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Audio & Video 제품으로서는 RCA에서 출품된 DSS(Digital Satellite System)와 Advantage System이 소개되었다.

이동통신 제품으로서는 주로 Motorola에서 소형이면서 성능이 우수한, Cordless Phone, Cellular Phone 및 Pager 등이 출품되었으며, 멀티미디어용 PC류, Grave기 Hardware 및 Soft가 많이 출품되었다.

Video Game에서는 3DO가 주가 되는 Game기인 Hardware와 Soft가 많이 출품되었다.

이번 하계 CES '94를 참관하면서 느낀점은 향후 미국시장 진출은 Cellular Phone 등 이동통신기기 분야 및 Video Game기(3DO, CD-I, CD-ROM)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력 있는 제품 및 부품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